

## 애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호세아 11:1-11

### 【인도자를 위한 예화】

두 자녀를 출가시키고 여유를 갖게 된 중년의 아들이 노년의 아버지와 여행을 갔습니다. 시력이 신통치 않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저 멀리 보이는 나무가 무엇이나?” 아들이 “은행나무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아들아, 저기 날아다니는 새는 무엇이나?” “까치 떼가 날아가고 있네요.” “아들아, 저기 아래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게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아들아, 저 멀리 보이는 산의 봉우리가 몇 개나 되지?” 계속되는 아버지의 질문에 아들은 짜증이 났습니다. “아버지,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질문하시는데, 저도 계속 대답하는 게 쉽지 않네요.” 툭툭거리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아주 어렸을 때 질문이 참 많았지. 같은 질문을 수도 없이 반복하며 묻기도 했단다. 그때마다 나는 친절하게 상세히 알려 줬어. 네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말이다.” 아들은 어린 아들의 계속되는 질문에 아버지도 지치고 신경질이 났을 텐데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친절하게 대답했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진실한 사랑은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가족, 친구, 교회, 직장 등 주변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나요?

### 【본문 읽기】 호세아 11:1-11절을 함께 읽습니다

#### 【배경 이해하기】

1-3장은 호세아의 삶에 나타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회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11장 1-11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빗대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전합니다. 특히, 11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북 이스라엘(3, 8~9절에 나온 에브라임은 북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의 죄악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 줍니다. 호세아는 주전 750~722년에 북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아모스보다 조금 늦게 활동했고, 남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이사야와 미가 이전에 또는 부분적으로는 동시대에 활동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 북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주전 787~747)였습니다. 이때는 아합 왕조와 예후 왕조의 폭정이 끝나고 영토가 회복되어 새로운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아진 상황에서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오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존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8절에 나오는 아르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도시인데(창 14:1-16), 그들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앗시리아에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고 이집트와 일종의 동맹을 맺음으로써 살만에셀 5세(주전 727~722)의 진노를 초래했고, 결국 호세아의 예언대로 앗시리아에 멸망당합니다(왕하 17:4).

#### 【말씀 나누기】

##### 관찰과 묵상 I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과거 이집트의 압제에서 그들을 건져 내셨는데, 이후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나요?(1-2절)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우상을 분향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은 출이집트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구출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으며, 필요할 때마다 물을 공급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이라고 하시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친아들처럼 여기시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에’라는 말은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를 의미하지만,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보내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간절할수록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에 거역하며 풍요와 번영의 신인 바알과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 곁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 적용과 나눔 I

**신앙생활 초기의 순수했던 모습을 떠올려 보고, 지금 내가 회복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셀 수 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한 채 배은망덕하게 처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고, 안아 주셨고, 고쳐 주신 은혜를 잊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죽을 고비에 처할 때마다 살려 주신 하나님을 모르는 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만 하나님께 순종했고,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불순종했습니다. 출이집트 초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외했고(출 14:30-31),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출 15:1-18). 그러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출 34:6)의 호의가 계속되자, 그들은 하나님 은혜의 가치와 귀함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내게 신실하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인식 아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관한 감사함이 점점 줄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초기에 있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작은 죄도 무겁게 여기던 마음, 소소한 은혜에도 감사했던 그 감격이 아직 살아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관찰과 묵상 II

**하나님께서로 돌아가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국 일어날 일은 무엇인가요?(5-7절)**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앗시리아 사람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며, 그들(바알)을 불러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와 앗시리아와 바알을 의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날 일이 5절에 언급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는 문법적으로 ‘저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는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9:3 참조). 다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앗시리아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고 도리어 이스라엘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불러 호소하며 도움을 구하지만, 바알은 이스라엘을 높여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의지한 이스라엘의 현실은 파국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특히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성문 빛장이 부서질 것이다”(6절)인데, 이는 하나님이 악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했고(5절),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헛된 계획을 세웠고(6절), 끝끝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7절).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의 삶이 비참해지겠지만,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8-11절).

## 적용과 나눔 II

**나는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나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확신하는지 나누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드마나 스보임처럼 놓거나 버리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8절).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이 끝이 없으며 강하게 치솟는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함은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9절). 하나님은 사람처럼 인내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고, 무한한 인내로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호세야는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돌이키지 않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를 것이라고 선언합니다(10-11절). 하나님은 대적이 두려워 떨게 하는 사자와 같은 분이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뒤따르면 어떤 길을 가더라도 두려울 게 없으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에서 머물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신실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돌아오는 백성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크신 사랑으로 덮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태장성결교회 <http://taejang.org>